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0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1일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이재명 당선 가능성 1위… 보수 표심 막판 결집

대선 D-7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6.5%·김문수 40.4%·이준석 10.3%
당선 가능성 이재명 54.7%…정당지지 민주 43.1%·국힘 38.5%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유지하고, 지지후보와 무관하게 당선 가능성도 54.7%로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2·3·4면〉

특히 28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등 사실상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후보 지지 견고성'도 탄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 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5%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0.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0.3%, 기타 후보 0.8%였고 유보층은 2.0%(없음 1.2%·잘 모르겠다 0.8%)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선후보 1·2차 TV 토론이 끝나고 난 후 진행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진행돼 선거 막판 민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64.4%), 여성(48.8%), 40대(63.5%)와 민주당 지지층(96.3%), 진보층(8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김 후보는 대구·경북(58.6%), 여성(42.1%), 70대 이상(57.6%), 국민의힘 지지층(93.4%), 보수층(71.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이준석 후보는 강원(13.3%)과 서울(13.2%), 남성(14.9%), 20대(30.3%) 저 연령층, 개혁신당 지지층(90.2%), 중도층(1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에서 '본인의 지지와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4.7%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다.

이어 김문수 후보(38.3%), 이준석 후보(4.5%)의 순이었고, '없음, 잘 모르겠다'는 응답 유보층은 2.2%, 기타 후보 0.3%였다.

또 이재명 후보는 후보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다른 후보를 앞섰다.

이재명 후보(당선 가능성 54.7%·후보 지지도 46.5%)는 +8.2%p로 후보 지지도 보다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김 후보(당선 가능성 38.3%, 후보 지지도 40.4%)는 -2.1%p, 이준석 후보(당선 가능성 4.5%, 후보 지지도 10.3%)는 -5.8%p로 후보 지지도 보다 당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선거일까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유권자의 '지지 충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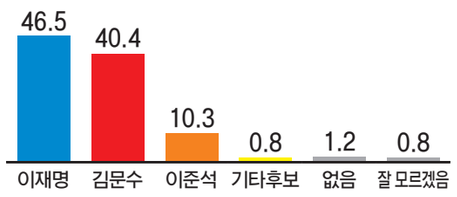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층(2968명)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지'의 지지 충성도를 알아본 결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87.5%,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이 10.8%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별로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 계속 지지할 것이다' 89.9%로 지지 충성도가 높았고, '김문수 후보 지지층 계속 지지할 것이다'도 90.8%로 지지 충성도가 높았다.

이 밖에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8.5%였다. 이어 개혁신당 8.0%, 조국혁신당 1.6%, 진보당 1.0%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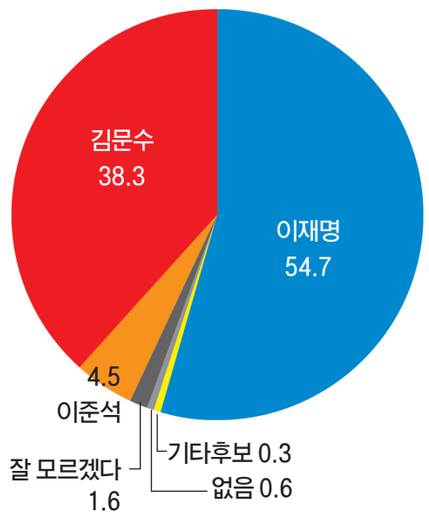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 ARS 방식 100%로 진행됐고, 응답률 9.0%에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8%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선후보 지지도 〈단위:%〉



◇ 당선 가능 후보 〈단위:%〉



"진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영동시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손깃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금타 불 꺼진 뒤 대기 중 중금속 측정 시작했다

화재초기 '문제없다' 취지 문자발송
뒤늦게 "죄송하다" 부실 대응 인정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화재가 진화된 뒤에야 대기 중 중금속 측정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발생 초기 시민에게 '대기오염물질 유출 관련 매시간 측정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정작 중금속 측정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기사 6면〉

광주시는 2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일부 부실 대응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중금속 측정 시기와 관련, 화재 4일째이자 화재 '완진'(완전 진화) 선언이 내려진 날인 20일이 돼서야 뒤늦게 대기 중 중금속 측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금속이 대기중으로 확산할 수 있는 화재 시기를 벗어나 유효하지 않은 검사를 했다는 얘기다.

시는 금호타이어 화재의 유해물질 측정치를 지난 21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등에 따라 사용금지된 기준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비교한 뒤 '미미한 수준'이라는 식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점을 인정했다. 광주시는 "측정 결과를 비교할 만한 대기 환경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료 공개 시 결과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TWA(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값을 참고치로 활용했다"고 했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행불자 등 '과거사 DNA' 통합 DB 구축을 ▶7면
굿모닝 예향 - 남도투어 정원이 주는 선물 ▶19면
타이거즈 전망대 - 부진한 KIA 신인들엔 기회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일시 5월 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

선거일 투표
일시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준비물 및 주의사항
준비물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쳐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 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